

ISK, 용제 · 수계 도료용 TiO₂ 개발

역분산성 · 내후성 뛰어나고 광택도 우수 ... 2004년 가을 정식판매

石原産業(ISK)이 용제계나 수계도료를 불문하고 최고수준의 역분산성과 뛰어난 내후성을 발현하는 도료용 이산화티타늄(TiO₂)의 새 그레이드를 최초로 개발하고 4월부터 도료를 중심으로 샘플출하를 개시한다.

2004년부터 진행시키고 있는 인쇄잉크 이외에 이산화티타늄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규 그레이드 시리즈 전개의 일환이다.

독자적인 초미립자 노하우에 따라 Gyricon, Alumina를 티탄표면에 처리해 도료수지나 안료 등과의 상분산성이나 광택을 가지며, 기존품종에 비해 광택이나 내후성이 뛰어나 용제·수계 모두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도료용도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ISK에서는 주력사업인 이산화티타늄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용도에서 과립모양이나 Slurry 형태의 이산화티타늄 등과 같은 가공제품을 시도하는 한편 2004년 들어와 도료, Gravure Ink, 수지용 착색제 등 각 용도에 최적화된 이산화티타늄 개발제품을 새로운 시리즈로 투입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시장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ISK가 개발한 신제품은 초역분산 특성이 뛰어난 <Tipaque PEC101>로 염소공법에 의한 Rutile형의 결정구조이며 평균입자 지름이 0.25마이크로미터인 차세대 타입의 이산화티타늄이다.

독자적인 초미립자 핸들링 노하우로 Gyricon이나 Alumina 유기물의 표면처리에 의해 세계 최고수준의 분산성, 광택을 가진다.

기존 시리즈는 내후성을 높이면 분산성(광택)이 저하되는 등 Trade-off 부분이 있었으나, 이산화티타늄 입자의 특성을 표면처리로 높여 용제계 도료, 수계도료를 불문하고 매우 높은 분산, 광택성을 발휘한다.

ISK는 새로운 시리즈로 개발한 도료용 Tipaque UT771, Gravure Ink용 Tipaque UT331 등에 필적할만한 새 그레이드로 평가하고 2004년 가을에는 정식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6/29>